

특 집 디지털도서관과 전자책의 만남 : 현황과 향후 과제 ④

어린이들과 함께 커가는 학교도서관과 전자책



박성연*

2001년 강남구청의 문화개발 사업의 하나로 강남구내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자책도서관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평생학습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학교와 지역 내의 독서문화 창출은 물론이고 교수학습 지원, 문화활동의 공간제공,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이라는 취지로 운영되도록 추진된 것. 각 학교장들의 신청을 받아 공간 확보를 우선으로 시작된 전자책도서관은 서가와 인쇄매체의 도서보다는 컴퓨터 시설과 그 외 전자매체를 다룰 수 있는 시설들을 완비하여 전자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개원초등학교는 기존에 본관 3층에 교실 두 칸 정도의 어린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명예교사들과 도서담당교사를 주축으로 운영되었으며 오후 3시까지 아이들이 도서 대출과 반납, 열람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2001년 독서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학교장님의 신청으로 전자책도서관 구축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 도서관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입구 앞에는 아직 풀지도 않은 책 몽치들이 놓여 있었고 내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다. 교실 4칸의 약 80평 크기의 전자책도서관은 색색의 쿠션의자와 곡선서가 그리고 44대의 컴퓨터와 8대의 DVD로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개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같이 있는 담당자와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2002년 5월 28일 개원전자도서관이란 이름으로 드디어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시설비 3억여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개관하게 된 전자책도서관은 처음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기존에 도서관이 있어 아이들도 많이 낯설어 하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 주었던 것은 '전자책도서관'이었다. 전자책도서관이 개관되었던 2002년, 처음으로 전자책을 접하게 된 학생들과 지역주민, 교사들 모두가 매우 생소한 가운데 호기심과 신기함으로 전자책을 이용했다. 본인이 직접 대출, 반납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도서를 바로

* 서울 개원초등학교 전자도서관 사서, monaco@hanmail.net

다운받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 뿐 아니라 자유허간, 점심시간에도 전자책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지역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전자책에 대한 문의를 통해 전자책 이용을 희망하게 되었다. 교내 학생들은 전자책 이용수업을 통해 전자책 이용방법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전자도서들을 보유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욕구가 충족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미취학 학생과 저학년들에게는 전자책 구연동화가 특히 인기가 많다. 읽어주고 움직이는 멀티미디어가 지원되는 동화책은 종이그림책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기 때문이다.

저학년 보다는 이용 빈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고학년들에게는 영어문제나 수학문제가 있는 도서의 대출이 늘고 있어서 참고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에 익숙한 요즘세대에 걸맞게 음성, 효과음, 움직이는 화면, 게임 등을 추가하여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자책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책에는 메모할 수 있는 기능, 검색 기능, 줄긋기 기능, 지우기 기능, 형광펜 표시 기능, 책갈피 기능, 전자사전기능 등 수많은 기능을 통해 전자책을 읽으며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더했다. 전자책은 기존의 한정적인 종이책에 비해 지정된 책 한 권을 여럿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독서하고 의견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서로의 글에 리플을 달아 주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용수업 시간에 도서검색에 대한 철저한 가르침으로 일반도서와 연계를 시켜주는 것도 효과가 있었으며 도서 대출이 금지된 아이들도 연체기간동안 전자책으로 집에서 독서를 할 수 있고 고학년 아이들은 종이책으로 비치돼 있지 않는 도서를 전자책으로 찾는 게 점점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어가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소장하지 못한 책을 꼭 종이책으로 찾기보다 전자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커다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책도서관이 개관된 이후 이곳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숙제를 해결하고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전자책도서관은 요즘 아이들에겐 가까운 곳에 있어 어느 때나 드나들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전자책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서관내에 전용 뷰어 (예:Acrobat Reader)가 설치된 컴퓨터시설이 있어야 한다. 전용 뷰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하지만 학교나 공공기관에 있는 컴퓨터에는 하드보안관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드보안관을 해제하고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는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책 업체와 도서관 담당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보완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자책을 다운받아 읽기 위해서는 이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 및 주민들에게 이용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내 학생 및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 지역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지를 해서 이용교육을 실시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컴퓨터의 수리와 헤드셋과 마우스 등과 같은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컴퓨터의 잦은 예러나 고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늘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전자책을 이용하는 컴퓨터 서버문제 또한 고려해야한다. 학교 도서관 수업시간에 전자책 사이트에 접속하면 속도가 느려 책 한권도 제대로 못 읽는 경우 학생들은 지루해하고 다운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가 접속해도 속도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서버를 확충해야 한다.

무엇보다 담당 사서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점은 전자책 선정에 관한 것이다. 요즘은 전자책도 여러 업체에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구입해 각 학교에 서비스를 해주고 있지만 신간 도서를 구입하는데 담당사서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도서선정에 사서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처음에 호기심으로 전자책에 관심을 갖던 이용자들이 흥미를 잃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고 이런 장애요인이 나타나 조금씩 이용자가 줄어드는 현상도 있으니 꾸준한 관리 보수가 필요한 것이다. 전자책은 도서의 보수나 훼손 걱정이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작은 에러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용자의 발길이 끊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담당사서 혼자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업체들과 계속적인 연계도 필요하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에 먼저 교사들의 이용수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도 전자책은 컴퓨터를 통해 보는 책이기에 독서의 매개체인 컴퓨터를 종이책을 다루듯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교사가 안보는 사이 컴퓨터를 이용한 안 좋은 일이 없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자책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자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를 높여서 전자책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과 전자책 업체, 담당 사서 모두가 전자책의 필요성과 이용교육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학교장과 전자책도서관 정책담당자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담당 사서는 전자도서의 홍보를 위해 전자책과 멀티미디어, 인터넷 사용에 서툰 이용자에게는 이용교육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용자교육을 폭넓게 실시해야 한다. 수업시간 교사들에게 전자책을 이용한 수업을 하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항상 쾌적한 인테리어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전자책 독서습관을 유도하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책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불편사항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요즘 컴퓨터에 대한 인식이 게임이나 채팅으로 못 박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같은 도구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인 동시에 책임인 것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엄마와 5살배기 딸아이가 멀티 동화를 보며 서로 웃는 모습은 담당자의 마음을 보람차게 만드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노력으로 어린이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학부모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즐거운 전자책도서관으로 발전하여 지역사회와의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